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1년 3월호

통권 제 21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2월 교우소식

### 새 가족

- ♣ 이수정 107구역, 종로구 원서동 135-39  
궁전빌라 가동 201호, 010-6228-3986
- ♣ 홍윤표 208구역, 성동구 마장동 388-45  
010-7164-1702
- ♣ 김시은 208구역, 종로구 혜화동 20-29 405호  
010-7183-7637

### 결 혼

- ♣ 김주석군·김승희양(김창기교우·조성옥집사  
차녀), 12일(토) 오후1시, 안동교회본당.
- ♣ 이기현군·유은선양(유왕재집사·이순옥권사  
장녀), 26일(토) 오후3시, 웨딩의전당 2층 토파즈홀

### 이 사

- ♣ 이종서 장로·김행미 집사, 강남구 논현동 12-7  
번지 파인빌라 201호
- ♣ 김윤석, 김재진 집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e편한세상(아) 105동 301호

### 감 사

- ♣ 오도광집사·이주영장로, 13일(주일) 점심식사
- ♣ 조명자 권사, 27일(주일) 점심식사

### 입 원

- ♣ 정확재 집사, 상계백병원 1603호.

### 별 세

- ☞ 고 백남권성도(백병기·오금숙집사 부친)  
14일별세 16일장례.

## 사랑의 선물주머니

2010년 12월 12일 ~ 2011년 1월 23일 까지 수집한 '사랑의 선물 주머니'를 필요한 기관에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교인들에게 520여개의 선물주머니를 나누어 드렸고, 250여개가 수거 되었습니다. 아래는 수거된 물품내용, 그리고 그 물품을 분류하여 전달한 기관의 내용입니다.

### 물 품 내 용

- \* 의류(옷,내복,양말,수건 등)  
대형4박스, 중형1박스
- \* 생활품(비누,삼푸,린스,핸드크림 등)  
대형 1박스, 중형 1박스
- \* 문구(연필,볼펜,공책,문제집,교양서적등)  
대형 1박스,소형 2박스
- \* 과자 : 소형 1박스

### 전 달 기 관

- \* 예답원(장애인 시설)  
의류(대형4박스), 생필품(중형1박스)
- \* 라파엘의 집(장애 아동 시설)  
의류(중형 1박스), 생필품(소형 1박스)
- \* 서울시립 아동복지센터:문구(소형 1박스)
- \* 마가렛 지역 아동센터:문구(소형1박스)
- \* 열린문복지센터:문구(대형1박스),과자(소형1박스)
- \* 그 외 여러기관:생필품(35주머니)

## 자녀를 위한 기도문

‘민족의 미래를 키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2011년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어떻게 민족의 미래, 안동교회의 미래를 키울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하는 부모,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번 유아세례 교육때, 아기 영서를 위한 엄마 김명자 교우의 기도를 소개한다.

“인간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생육하며 번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를 택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로 영서를 주셨으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주님이 주신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영서가 자라날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기보다는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영서가 되어,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적인 인물 영서가 되게 해 주세요. 야베스에게 주신 축복을 영서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께서 영서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 영서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영서를 도우사 영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세요.” 영서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우정을 갖고 악한 자들과의 사귀를 거부하며 악한 자에게서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있게 하시고 좋은 우정을 경험하여 그 우정을 통한 성장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영서가 예수님이 친구되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의 우정을 가꾸게 해 주세요. 영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갈망

하게 해 주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게 해 주세요. 영서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항상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세요. 삶에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 부모가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영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중고등부 소식

교사 김경일

안동교회 옆 동네인 소격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사와 유학으로 떠난 지 9년 만에 중고등부 교사로 다시 찾은 안동교회 중고등부는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아동부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정다운 얼굴을 다시 대하니, 저의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니다. 비록 교사로 부임한지 2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1월 겨울 수련회에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학생들에게 보여주셨던 열의와 수련회를 주관하신 최진오전도사님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최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Self Leadership이라는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정하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신앙을 자라게 해주며 더 나아가 학생들 스스로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해 매진하게 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하는 보다 능동적인 방법을 가르쳐 줌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여유를 가르치므로 어떤 사안에 있어 확일적이거나 경직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도 틀린 생각으로 치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과 여유를 지니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중고등 부학생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준비해주시는 최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직 교사로써 많이 부족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기회였습니다. 어느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했지만, 저는 '청소년이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서 전문적이 공부를 하거나 직업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는 미래를 결정짓는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간은 인간들의 왕이다. 그것은 부모인 동시에 무덤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간까지도 지배하는 위대한 왕인 주님을 영원한 친구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시고 영원히 지켜 주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201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민족의 미래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겨울 성경학교

전도사 류화숙

2월 19(토)~20(일) 양일에 걸쳐 아동부에서는 1박 2일의 겨울 성경학교가 열렸다. 새로 올라온 귀염둥이 1학년 아이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총 32명의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빙어를 잡아서 튀겨 먹어보고 게임과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겁고 알찬 시간들을 보냈다.



토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구의동에 있는 어린이 회관으로 야외활동을 다녀왔고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엔 삼청동으로 보물찾기 미션을 수행하러 다녀왔다. 9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찬양과 율동의 시간을 끝으로 조별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7살 아이들도 2명이나 참석하여 언니 오빠들보다

더 당찬 모습으로 끝까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루 종일 피곤할 법도 하긴만 늦게까지 수다를 떠느라 교육관은 시끌벅적했다. 다음날 교사들은 다들 지쳐 있는데 6시부터 일어나 머리 감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며,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기특한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꼭 보여 주어야 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코너학습으로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게임과 여러가지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들 중보기도, 부르짖는 기도, 만나는 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다양한 주제들을 멋지게 구성해 준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보통 때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아이들이 조장을 맡으며 얼마나 열심히 인술을 하든지, 또 아직도 어리게만 느껴지던 8살 아이가 7살 동생을 알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사들은 너무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역시 아이들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저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본 귀한 시간이었다. 부모님들! 더 이상 내 아이가 어리다고, 소극적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동 아이들, 최고랍니다!

## 영아부 친교 시간

전도사 을지자르갈

새해에 영아부는 '친교와 나눔 시간'을 1년에 네 번 갖기로 계획하고, 첫 번째 모임을 지난 2월 27일 가졌답니다. 첫 번째 친교 모임은 인형극과 부모교육 및 친교로 구성되었어요. 인형극은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하셨어요"라는 제목이었어요. 아이들은 마치 진짜 요나를 만나고 있는 듯이 인형극에 빠져 들었습니다. 초롱초롱 눈을 반짝이고, 쭉긋쭉긋 귀를 세우며 정말 예쁜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들의 예쁜 모습에 인형극을 준비한 선생님들이 더 즐거워 하셨던 것 같아요. 수고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1년을 계획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자 계획한 인형극은 이날 성공적인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안재훈 목사님의 축도로 1부 순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이충희 선생님(안동 어린이 집 원장)의 인도로 부모교육 및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아이의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름에 대한 뜻, 아이에 대한 기대, 아이의 특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고 또 자신에 대해 오픈할 수 있는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부 순서의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102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관별 찬양대회 연습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영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면서 이날 친교의 시간을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교회소식

▷ 신생아 모자 전달



▷ 3남선교회 특강

위대한 한국인 그는 누구인가?  
(성서로 본 한국인 정체성)  
강사: 유석근 목사(알이랑 교회 담임목사)



▷ 한길의 날



▷ 3.1절 기념예배



▷ 행복나눔보고대회 & 사랑의 선물주머니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제96회 총회 주제가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해졌다. 주제에 따른 부제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로 확정했으며 주제에 맞는 성구는 마태복음 5장 13~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11~12절로 정했다.

총회 주제연구위원회(위원장:이수영)는 지난 24일 연동교회 가나의집 다사랑에서 제95회기 제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제95회 총회 주제와 주제 성구를 정한 뒤, 총회 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주제연구위원회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 시대의 주된 관심사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향후 4~5년간 같은 방향으로 총회 주제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주제연구위원회는 총회 주제가 확정됨에 따라 주제해설집을 발간하기 위한 집필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학(성서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과 실천(교육 선교 봉사) 두 부분으로 나눠 오는 5월말까지 초고를 완료하기로 했다.

## <교육 기획> 사순절, 경건하며 절제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다. 사순절은 부활 46일 전인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 주일(6회)을 제외한 40일 간 계속된다. 올해는 4월 24일이 부활주일이라 3월 9일(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

사순절은 교인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

장을 구하고 회개를 하는 영적 훈련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 무렵에 교회학교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속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 사순절은 무엇보다 경건과 절제의 실천이 강조되는 시기. 총회 교육자원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저금통', '일기 쓰기', '다이어트' 등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사랑의 저금통'은 사순절을 시작하며 저금통을 나눠주고 용돈을 아껴 저금하도록 한 후 이를 모아 부활절에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 등을 돕는 데 사용하면 된다. '일기 쓰기'는 작은 노트를 나눠주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

'다이어트'는 사순절 동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먹지 않도록 하거나 좋아하는 놀이(게임, TV시청 등)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최후의 만찬에 앞서 진행된 세족식을 떠올리면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김의 자세를 익히는 것도 권할만 하다. 또한 다양한 색깔을 덧입힌 달걀을 나무에 걸어놓는 '부활 나무' 프로그램 진행과 연극 공연도 무난하다.

영남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 김은혜연구원은 "연극은 준비과정을 통해 신앙공동체를 함양시키기도 하지만, 실교와 공과의 집중도를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영성 훈련으로는 학생들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말씀을 제시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기록하게 한 후 깨달은 바와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일기로 대치시킬 수 있다.

환경도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사순절과 관련된 교육환경 꾸미기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원장:이규민)은 최근 사순절·부활절 세미나를 통해 환경 꾸미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레터링 보드'를 활용해 시각적 효과로 자연스럽게 사순절을 알려거나, 경건한 예식을 돕는 초를 켤 수 있게 촛대를 만들어 강대상 앞에 꾸며보는 것이 소개됐다. 부활절까지 매주 하나씩 향초를 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점진적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를 제안한 이해숙전도사(동신교회)는 "이해하

기 쉬우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은 새로운 인지적, 감각적, 영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한다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로 확정됐다. 지난 2월 17일~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앙위원회를 가진 WCC는 마지막 날인 22일 토론 끝에 정의와 평화를 강조한 주제를 결정했다. 주제성구는 이사야 42장 1~4절이다.

당초 총회준비위원회(APC)가 제안한 주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로 부름받은'(In God's world, called to be one)이었다. 하지만 중앙위원들은 격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총회가 열리는 한반도의 분단상황 등을 감안해 '정의'와 '평화' 등의 주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 중에는 통일의 의미를 담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WCC는 총회 주제를 결정한 이후 "주제는 단순히 총회의 슬로건이나 모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관련한 신학적 성찰을 비롯해서 예배 등 다양한 실천적 활동들이 함께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총회 주제를 확정한 WCC는 오는 9일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총무가 포함된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부산 벡스코와 지역교회들을 방문하고 총회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WCC 총회 한국측 준비위원회 조직 발표 기자회견은 내부 사정으로 잠정 연기됐다.

## "뉴질랜드의 가장 암울한 날"

지난 22일 오후 12시 50분경(현지시간) 뉴질랜드 남섬 북동부 크라이스트처치시(Christchurch city)에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다. 존키 뉴질

랜드 총리는 이날을 '뉴질랜드의 가장 암울한 날(darkest day)'이라고 표현했으며, 외신들은 잇따라 사고 현장을 '생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 23일 현재 사망자수는 75명으로 알려졌지만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성명이 발표된 상태다. 도시에는 5일 간 비상계엄이 선포돼 중심부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은 모두 도시 외곽 또는 주변 도시로 이동 중이다.

현재까지 교민 인명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2일 당일에만 2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는 등 계속되는 공포가 시민들을 엄습하고 있다. 본보에서 확인 결과 본교단 김진용, 박충성, 심상철 선교사 가정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어 앞으로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상징 격인 대성당의 첨탑과 내부 건물이 붕괴됐으며, 에이번강(Avon river) 주변의 옥스포드침례교회는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크라이스트처치 노회의 회관으로 사용되는 녹스교회도 지붕을 남기고 모든 벽이 파괴됐다.

현지 선교사들은 "시내 중심가의 벽돌로 지어진 주요 교회들의 첨탑이 거의 무너졌다"고 전했다. 시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인교회 중에는 새소망교회(심상철선교사), 열린교회, 한인장로교회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교나 마을회관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이를 예배처소로 사용해 온 연합장로교회(박충성선교사), 크라이스트처치장로교회(김진용선교사), 마제스티교회는 당분간 모임을 갖기가 어렵게 됐다. 크라이스트처치시의 한인교회는 총 10곳이다.

총회 파송 박충성선교사는 이번 지진에 대해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역사, 경제, 자존심이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시는 185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크라이스트처치칼리지 출신 이주자들이 '기독교 도시'를 꿈꾸며 마을을 형성한 곳이다. 이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건물을 설계해 나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중심부인 멘체스터 거리를 비롯해 곳곳이 관광객들을 위한 유흥가로 채워지고 있다. 시의 엠블럼에 등장하는 대성당 첨탑 그림에서는 원래는 있는 십자가까지 삭제됐다. 이번 지진으로 시는 많은 교회와 함께 초기 법원, 박물관 등 역사적 유적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뉴질랜드 역시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펴나갔고 이민자와 유학생들은 감소 추세에 있었다. 이에 따라 선교 거점 역할을 하는 한인 교회들의 재정이 약화됐으며, 지난해 9월 지진까지 겹치면서 선교사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번 지진에 관광산업마저 완전히 중단되면 현지 사역자들은 다시 한 번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선교사들은 무너진 교회들을 보며 크라이스트처치 시민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도시가 세워질 때처럼 한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의 집들을 재건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지난해 규모 7.0의 강진을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이겨내면서 '재난에도 끄떡없는 도시'라고 자부해 온 크라이스트처치시. 더 작은 6.3의 지진에 그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다. 우수한 보험 제도를 자랑하던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 원조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시에는 생필품과 식료품이 매우 부족하며,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한 의료진과 복구팀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한국 교민과 유학생, 선교사들도 서로를 위로하며 안전한 곳에 모여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 매물 가축 눈에 아른거리는데 '하나님 진노'라니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의 축산 농업 형태를 비난하고 육류 소비를 줄여 채소 및 곡류 위주의 식사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이 생각 없이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듣기에 정말 거부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삼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지난 12월 초 소 70마리를 살처분한 이견재장로(고천교회)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 도중 감정에 북받쳐 한 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가족처럼 키우던 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최근 주위 사람들에게서, 혹은 교계에서 개회한 세미나에서 들은 '가시 돋친 언어들' 때문이었다. 최근 모임에서 한 목사로부터 "소 키우기 싫으니까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 장로는 최근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제역 관련 행사에서도 피해당한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위로하기 보다는 지나친 육류 소비에 대한 반성과 비판, 기업형 농가의 비생명윤리적 사육 환경에 대한 비판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오히려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울분만 돋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월 애지중지 키우던 소들이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고 매몰된 후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다"는 이 장로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가축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식의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최근 몇 번이나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 정도였다"며 울분을 쏟아놓았다.

# 위로가 아닌 상처만 주는 교계 행사들

최근 본교단을 포함해 교계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 관련 행사에서는 친편일률적으로 지나친 육류 소비에 대한 반성과 비판, 기업형 농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비판에만 집중되어 있어 오히려 구제역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의 정서적 괴리만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본교단 총회가 '구제역 사태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교회 대응을 모색하는 포럼'을 시작한 이후 NCKK, 한국교회회망봉사단 등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도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교회가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포럼 및 워크숍에서 대부분의 신학자 및 목회자들이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물질을 한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물", "탐욕적인 육식문화가 불러온 과잉축산에 의한 공장식 밀식사육의 일반화가 구제역의 원인",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새로운 밥상문화의 전환과 축산방식의 과감한 개선 필요" 등으로 지금 당장 상처 입은 축산업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보다는 신학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 지난 12월 키우던 돼지 1천2백63마리를 매몰한 본교단 이하교회 김대현장로에게 본보가 최근 교계 세미나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한 반응을 문자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 꺼려

하면서도 "피해농가로서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교회 및 기독교 단체에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보다 그저 조용히 피해농가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축산을 재개해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싶은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 # "차라리 조용히 기도나 해달라"

교인들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안동교회 풍산교회 장세문목사 또한 최근 교계 세미나의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장 목사는 "최근 세미나에서 육식 위주의 소비문화를 지적하고 공장형 농장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사랑의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구제역 피해를 입고 마음을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지금은 교회가 이들의 아픔에 동감하고 성의를 표시하며 위로를 해주는 것이 더 이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 같다"며 최근 교계 세미나에서 흘러나오는 말들과 피해 농민들과의 괴리감을 비판했다. 아직 구제역의 피해를 입지 않은 농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에서 돼지 1천8백 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희오 장로(옥산중앙교회)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의 축산 농업 형태를 비난하고 육류 소비를 줄여 채소 및 곡류 위주의 식사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구제역 피해를 입은 분들은 3~4개월 있으면 다시 축산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위로는커녕 섭섭함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국내산 육류의 소비를 증대해서 축산농가를 돕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다"며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 교계 세미나의 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 노인의 생명보호, 교회는 수수방관?

최근 노인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회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인살림복지원(이사장:손인웅·원장:유경재)이 지난 15일 안동교회에서 개최한 제4회

늘푸른복지문화대학 교사세미나에서 '노인 자살의 특성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박지영교수(상지대)는 "교회 내 노인 자살을 비롯한 비극적인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생명안전망(Life-Safe Net)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이끌어 가야할 믿음의 리더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자살 시도자들은 자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수행 △살아온 날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더 이상 인간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존엄한 선택 △살아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의 결론 등으로 이를 제시한 박 교수는 "특히 자살 시도 후 편견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 출석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의 생명보호를 위한 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국 20여 개 교회 목회자 및 노년부 지도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교수진의 강의와 현장 실무자들의 죽음준비학교, 실버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받았다.

김정화 사무국장은 "앞으로 노인문제 심포지엄과 교사세미나를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개최하려고 한다. 노인들이 노인을 섬기는 '노노봉사'와 죽음준비학교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촌우물가

2011년 3월호 · 통권 제211호

발행처: **대인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안 재 훈

발행일: 2011년 3월 13일